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서 사회자본의 의의와 중요성

이 병 회 (공주대학교 교수)

“혈연과 지연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지 않은 사람은 인간으로 완전히 태어난 것은 아니다”

프롬(E. Fromm)

1. 머리말

국가이든 지역사회이든 집단이든 이들을 경제사회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요소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발전에서 자본이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여왔다. 자본은 우리에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그 혜택, 통제 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자본의 투자가 실패할 위험 그리고 손해를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 자본이란 새로운 자원을 창조하기 위해 투자되는 자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자본은 자원(natural capital), 실물자본(physic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실물자원은 항만, 공항, 도로, 기계, 자동차, 컴퓨터, 건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물질적 자원 혹은 생산된 자원을 의미한다. 실물자본을 우리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산업생산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를 낳을 수 있고 핵무기와 같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적자본은 개인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얻는 지식과 기술이 전형적인 인적 자본이다. 물론 학교 밖의 현장,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자본이다. 인적자본도 실물자본과 같이 긍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물자본은 인적자본 없이 건강한 결과를 낳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자원, 실물자본, 인적자본, 금융자본이 사회경제발전을 위하여 투자될지라도, 항상 긍정적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고 위험과 손실을 수반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부를 낳는 것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자본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어떤 이는 국가가 자원(natural capital)이 풍부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형적 자원보유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3세계에 속하고, 카타르와 쿠웨이트와 같은 산유국의 국민은 비자원 보유국인 한국보다 낮은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다(세계은행이 2004년 발표한 인간개발지표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28위,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47위와 44위이다). 자원의 풍요가 곧바로 그 보유국 국민의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있다. 다른 이는 시장개방, 자유무역과 같은 자유경쟁과 비교우위제도가 국가부를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최적의 사회조화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가장 시장개방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인 칠레가 한국보다 부유한가?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 항상 국가부를 낳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도, 법의 지배, 공정성, 평등분배, 사회정의... 등과 같은 민주주의와 민주사회가 국가부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 다른 이는 개인의 지식과 기술 즉 인적자본만이 자원이 부족한 사회가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1990년대 전후 몇몇 사회과학자들은 국가부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 신뢰(trust) 혹은 공동체(community)라는 개념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대충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 들의 사회는 더욱 더 부유해질 것이다'는 전제를 달았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협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협동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사회이든 국가이든 지역사회이든 긍정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과 협동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과의 협동을 통해서만 우리의 욕망의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서로 신뢰하면 할수록, 협동의 과실은 커지고 협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전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서로 신뢰하지 않거나 불신한다면, 협동이 어려워지고 협동하더라도 협동의 과실은 적어지고, 그들의 사회는 실물자본과 인적자본의 풍부한 경우일지라도,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 사회발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회자본이라는 것이다.

2. 사회자본의 인식과 상생협력의 바탕으로서 그 의의 그리고 연구배경

1) 사회자본의 새로운 인식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몇몇 보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1) 공자와 그의 제자 제궁 그리고 신뢰

공자는 그의 제자 제궁(Tsze-Kung)에게 통치를 하기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무기, 식량 그리고 신뢰이다. 지배자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없을 경우에, 그는 먼저 무기를 포기하고 다음에 식량을 포기해야한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다. 끝까지 지배자가 지켜야할 것은 신뢰라는 교훈이다. 신뢰가 없다면 우리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군인이 신뢰를 잃고 탈영한다면 무기는 전혀 쓸모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정부의 식량배급체계를 국민이 신뢰한다면 식량부족으로 정부가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다(Onora O'Neil, A Question of Trust, 2002, p.3). 신뢰와 경제사회발전의 연관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사회자본이 풍부하면 할수록, 사업에서 복잡한 계약과 감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인가? 다른 아닌 신뢰를 중심으로 된 사회자본의 육성이다.

(2) 버스 운전자, 버스 승객, 운수업자 그리고 CCTV : 신뢰

과거 버스를 탈 때 승차권을 산 뒤 승객이 버스에 타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켜야할 규칙이었다. 그러나 과거 승차권 없이 현금으로 버스를 타는 승객이 종종 있었다. 버스 운수업자는 현금을 내고 승차한 승객의 요금을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에 반납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였다. 운전기사와 운수업자, 그리고 승객 사이에 이 같은 규칙을 강행하기 위해 운수업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버스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였다. CCTV를 설치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운전기사와 승객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운전기사와 운수업자 승객이 규칙을 지키고 서로 신뢰한다면 비싼 돈을 들



여 모든 버스에 CCTV를 설치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결국 CCTV 설치비용으로 승객과 운전기사 운수업자에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승객, 운전기사, 운수업자 모두가 상호신뢰하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3자의 삶의 질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

(3) 교통감시카메라와 거래비용, 그리고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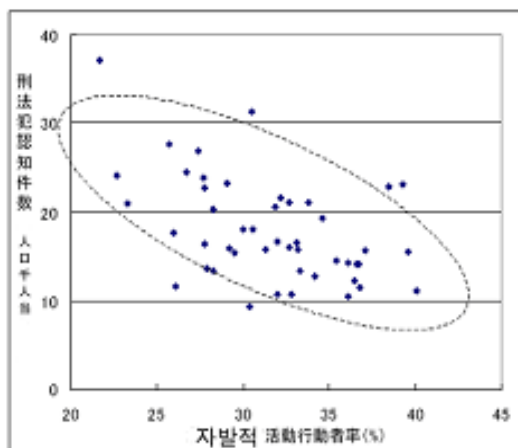
공주시 공주대교 사거리에서 대전시 농산물시장 근처 삼거리까지 직선 도로의 길이는 약 20킬로미터이다. 2(3)차선 왕복도로로 교통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운전자의 과속 방지와 교통정보 수집을 위해 약 4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이란 불신을 상징한다. 혹은 카메라가 없다면, 교통질서를 위배할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란 전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지킨다고 우리 사회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지킨다면, 카메라 설치비용은 훨씬 더 나은 사회건설에 투자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소문에 따르면, 카메라 대당 가격이 6000만원이라고 한다. 이 구간의 카메라 설치비용은 어림잡아 약 30억 원에 달할 것 같다.

다른 보기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최근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의 범죄발생건수가 적게 설치된 지역보다 높았다고 한다. 서울 강남지역에 CCTV 약 200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비용은 대당 1500만원이며, 모두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한다. 그 총 액수만도 수 백억원이다(한국일보, 2006년 10월 31일, 체면구긴 방범용 CCTV;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대수는 약 12만대라고 한다. 민간기관이 설치한 CCTV대수는 약 200만대 정도로 추론되고 있다. 서울신문, 2007년 5월 24일). 사회자본이 부족하면 할수록 이 같은 비용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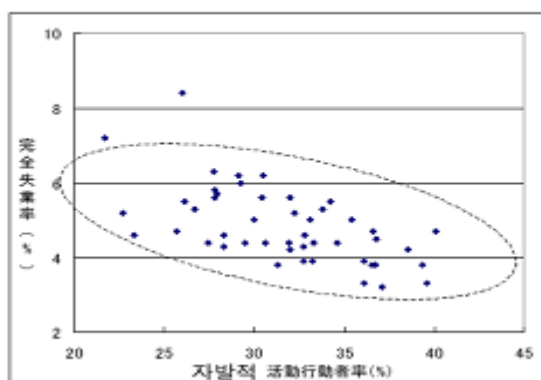
(4) 일본지역사회의 경우: 범죄발생률, 실업률, 출생률 그리고 사회자본

圖表 1-1 자발적 活動行動者率 / 犯罪發生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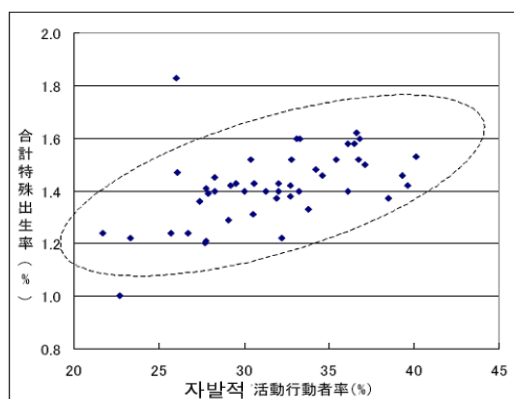
總務省
統計局「社会生活基本調査 2001 年」
刑法犯認知件数: 警察庁刑事局「犯
罪統計書 2001 年」

圖表 1-2 자발적 活動行動者率 / 失業率



失業率: 總務省統計局「労働力調査
2001 年」

圖表 1-3 자발적 活動行動者率과 出生率



出生率: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
情報部「人口動態調査 2001 年」



일본의 보기일지라도 위의 표(출처: 東 一洋, 2003/11/25)에서처럼 사회자본이 높은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사회보다 출생률은 높고, 범죄율과 실업률은 낮다. CCTV설치가 아니라 사회자본의 육성이 범죄율을 낮추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자발적 행동자 비율은 사회자본의 측정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5) 유대 다이아몬드 상인

콜맨(Coleman)은 미국 뉴욕의 유대 다이아몬드 상인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도매 시장은 외부인이 보기에 놀랄만한 속성을 보여준다. 판매 협상과정에서 한 상인은 다른 상인에게 - 다른 상인이 한 개 이상의 저질 다이아몬드 혹은 납유리 복제품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보증으로 - 다이아몬드 자루를 한가한 때에 사적으로 감정해보라고 넘겨준다. 이 상품은 수천 혹은 수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감정을 위하여 이 같이 다이아몬드를 자유로이 교환하는 일은, 다이아몬드 시장이 기능하는 데 중요하다. 만약 이 같은 교환이 없다면, 시장은 훨씬 귀찮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감정(鑑定)은 사회구조의 몇몇 특성을 입증한다. 일정한 상인 공동체는,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의 빈도와 인종적 유대 및 가족 유대에서 보면 매우 밀접하다. 이 같은 밀접한 유대, 가족을 통한, 공동체 그리고 종교적 결연은 시장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보증을 제공한다. 이 공동체의 어떤 성원도 그가 잠시 지닌 다이몬드 자루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치거나 다른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속인다면, 그는 가족, 다른 상인이 한 개 이상의 저질 다이아몬드 혹은 납유리 복제품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비공식적 종교적, 그리고 공동체 유대를 상실할 것이다(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JS 94(Supplement) pp. 95-120, 1988, 16).”

콜맨은 뉴욕시의 유대 다이아몬드 상인은 거래에서 어떤 공식적 보증이 없지만, 상호의무, 공동의 규범, 신뢰성을 통하여 경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6) 새로운 인식?

왜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되는가? 우리는 서로 신뢰하면 할수록 부유해질 수 있는데도 왜 서로 신뢰하지 않는가?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상호신뢰가 형성

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국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진행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대다수가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사회자본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자본에 접근하고 사회자본을 육성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한 연구결과는 치매의 위험도 줄인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들의 사회적 관계성(connectedness, 사회력)은 어린이의 남용과 청소년비행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이웃과 신뢰가 높은 지역은 범죄율이 낮고, 높은 수준의 신뢰와 참여를 지닌 지역(혹은 국가)은 더 나은 질의 지방정부(정부)를 지니고, 산업현장에서 협동적 태도는 산출/이윤과 관련이 있고, 혁신적 산업의 지역 클러스터는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신뢰 네트워크를 지녀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할 수 있다(OECD,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2001)참고).

세계은행은 1993년부터 사회자본을 검토하고 있고, OECD도 2002년부터 국제비교를 위한 사회자본과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각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지역단위들 사이의 사회자본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자본이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의 마법 열쇠(magic key)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다(물론 사회자본의 어두운 면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다른 집단 혹은 개인을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배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폐쇄공동체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2) 사회자본의 의의 : (상생)협력의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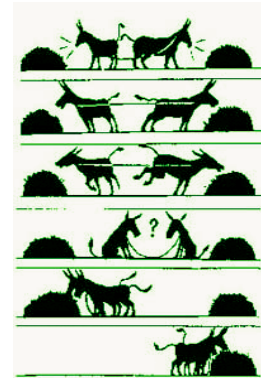
(1) 협력(cooperation)과 사회 상호작용

이타주의와 협력은 우리사회가 장려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타주의란 타인의 복지에 대한 비이기적 관심을 의미할 수 있고, 타인의 이익에 대한 기여 혹은 이기주의와 이기심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타주의란 경제적 의미에서



자신의 행동이 높은 비용을 지불할지라고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동에 해당된다(심리적 이타주의).

협력이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이란 뜻이다. 즉 공동의 경제적 혜택을 위하여 기업 혹은 사람들이 맺는 결사(associations)이다. 결사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형성하여 집단을 조직한다는 뜻으로 자발적 결사(voluntary association)와 같다고 하겠다. 이 같은 협력과 이타주의는 아래와 같은 사회상호작용 패턴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가. 협력 모델

협력 혹은 상호주의(mutualism)는 참여자 양쪽에 득을 제공하는 관계이다. 이는 합목적성을 낳는다고 하겠다. 이는 공생(symbiosis)관계이다.

“자공이 여쭙어 보았다. ‘다만 한마디의 말로 생애의 행위를 나타낼만한 말이 없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서(恕)일걸 세.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 일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공자, 서명원 역주, 『논어』 (서울: 삼중당문고, 1975), p. 219)

이 같은 공자의 서에 대한 관점 역시 상호주의를 잘 보여준다. 협력관계를 양자관계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같은 관계는 지속되고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사회집단들 사이에 적용될 경우에도 상호이익은 커질 것이다.

	행하는자: 혜택	행하는자: 고통
당하는 자: 혜택	협력	이타주의
당하는 자: 고통	이기주의	원한

나. 이기주의 모델

이기주의는 일방이 타인을 해치고 득을 얻는 것이다. 양자관계에 적용하면 1) 나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만 하고, 2) 다른 이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 한다고 하겠다(Himan은 이를 개인적 윤리적 이기주의(individual ethical egoism)로 칭하고 있다. Lawrence M. Hinman,

Ethics(Singapore:Thomson, 2003), p.120). 이 경우 행하는 자는 혜택을 보고 당하는 자는 항상 고통을 본다고 하겠다.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행하는자: 혜택	행하는자: 고통
당하는 자: 혜택	협력	이타주의
당하는 자: 고통	이기주의	원한

다. 원한관계 모델

원한 관계는 행동에 개입하는 양자가 모두 고통을 받는 경우이다. 이 같은 관계는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될 수는 없다.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행하는자: 혜택	행하는자: 고통
당하는 자: 혜택	협력	이타주의
당하는 자: 고통	이기주의	원한

라. 이타주의(altruism) 모델

이타주의는 자신의 안전과 혜택보다는 타인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타주의(altruism)은 불어의 autre(타인), 라틴어의 alter(타인)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타인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행위이다. 이타주의를 본성상 이기적인 인간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할 도덕적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직자, 기업가, 권력자가 따라야 할 행동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타주의 모델도 결국 협력모델(협동의 진화)이라는 생물사회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서울: 을유문화사,2002)를 참고할 것)

	행하는자: 혜택	행하는자: 고통
당하는 자: 혜택	협력	이타주의
당하는 자: 고통	이기주의	원한



마 협력과 사회 상호작용 그리고 결사

협력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결사(associations, 공동의 이익, 활동, 혹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조직화된 단체(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하는데 혹은 공동의 명분을 촉진하는데 동의한 사회적 평등자들의 조직(US History Encyclopaedia),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집합(Bacon's Law Dictionary) 따위와 같은 정의를 들 수 있다)를 형성한다. 결사는 협력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공동의 혜택을 추구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수단이라고 하겠다. 결사를 형성하고 우리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행동을 할지라도, 여전히 협력, 이기주의, 이타주의 모델은 병존하고 있고 협력의 방법, 협력의 수단, 협력의 과실, 그 과실의 분배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협력모델의 딜레마 :공유지 비극 모델

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성원이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 불행하게도 상호주의적(혹은 협력 또는 이타주의적) 선택이 아니라 이기적 선택이라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각각의 성원은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이기적 선택 혹은 집합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호주의적 선택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지역공동체에서 그 지역 차량 운전자에게 지역주민을 위한 깨끗한 대기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배기가스 정화장치(가격 10만원)를 장착하도록 했다고 해 보자. 이는 공동의 목표(깨끗한 대기)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성원이 결사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 성원인 운전자들이 협력한다면 다른 지역의 주민보다 이 지역의 주민은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모든 운전자들은 두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배기 가스정화 장치를 달 것인가의 여부이다.

		운전자(A)	
다른 모든 운전자		장착	미장착
	장착	3	4
	미장착	1	2

위의 표에서와 같이 개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선택은 4이다. 운전자A는 장착하지 않고 다른 모든 운전자가 장착할 경우에, 운전자 A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깨끗한 공기를 소비할 수 있다(무임승차(free_riding)혹은 free loading).

우리 지역 사회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사태는 3이다. 즉 모든 운전자가 장착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 나은 환경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 A에게 가장 나쁜 사태는 자신만 장착하고 다른 모든 이가 장착하지 않는 1이다. 이 경우 운전자 A는 10만원의 비용으로 장착하는 수고와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여전히 더 나쁜 환경에 직면한다. 그리고 1 보다 더 나은 상황은 모든 운전자가 미장착하는 2이다. 운전자 A는 다른 모든 운전자가 장착하리라고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에 놓으면 미장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물론 협력한다면 장착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운전자가 장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운전자 A는 최악의 상황인 1을 피하기 위해 미장착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장착이 자발적이고 강제성이 없다면, 운전자 A는 어떤 대안을 택해야만 하는가? 혹은 장착이 의무적일지라도 법의 집행이 불완전하다면 어떤 대안이 최선일까? 만약 장착을 의무화한다면 그 강요와 감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협력(장착)을 선택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비협력(미장착)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미장착을 선택한다면 지역공동체의 공기상태는 악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이 같은 보기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두 속성을 지닌다. 즉 1) 개인은 이타주의적 선택을 하는 것보다 이기적 선택을 함으로써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2) 지역사회 성원들의 전부 (혹은 대부분)가 이기적 선택을 한다면, 만인은 더욱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설명할 수 있다(진부한 보기로 국내의 자동차 썬팅을 들 수 있다. 해당 법률(가시광선투과율 70% 이하일 때)을 적용하여 단속하면 전체차량의 70%인 약 1000만대가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썬팅 자동차의 사고가능성(사고예방과 범죄예방)을 계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썬팅 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의 차량도 종종 자동차 썬팅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되기도 한다,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협력모델에서 사회자본의 의의

협력 모델이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유는 바로 무임승차의 이점과 타인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겠다. 개인에게 가장 불행한 사태는 자기(소수)만이 약속을 지키고 타인(다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고, 개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사태는 자기(소수)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타인(다수)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만인(다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협동을 이루어질 수 없고 그 협동의 결과는 빈약할 것이다.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의의는 자발적 결사를 통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첫째, 사회자본은 사회적 풀(social glue, lubricant)의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은 다양한 집단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신뢰와 상호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풀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풀은 사람들이 결사(집단)생활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즉 이 같은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신뢰의 양 혹은 안락감의 수준 과도 관련된다. 집단에 참여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상호신뢰의 수준이다. 둘째, 사회자본은 결국 집단과 집단을 연결하고 한 집단 성원을 이 같은 사회서클을 통하여 더 넓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Robert E. Lang & S. H. Hornburg, What Is Social Capital & Why Is It Important to Public Policy, Housing Policy Debate, Vol.9, Issue 1(1998), p. 4, 그림출처: 東 一洋, 2003/11/25).

사회자본이 축적된 공동체에서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기업과 기업, 지방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와 관련된 불확실성, 불신, 취약성, 위험이 줄어든다. 당연히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시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결사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시, 참여, 관여도 활성화된다. 지방행정에 의한 시장과 주민서비스 기능의 정비와 통합성의 확보, 행정 및 시장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사회적 풀이 약하거나 결합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면 성원들은 불신에 빠져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윤활유와 부족하거나 없으면, 결국 생산적 에너지에 사용

될 시간과 비용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낭비되고 사회발전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 발전의 장애물인 사회문제는 사회자본의 부족에 비롯되며 이는 신뢰와 신용의 결여 즉 사회적 풀과 사회적 연결능력의 약화에서 기인할 수 있다.

우리가 즉 경험하는 바와 같이 협력은 항상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함께 일하는 개인들 혹은 집단들을 포함한다. 협력이 낳을 수 있는 득을 생각하면 협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협력의 강점은 개별적으로 약하고 종종 무력한 사람(집단)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사회자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합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힘을 결합함으로써 그 이전에 향유할 수 없었던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요약하면 사회자본은 사회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미래를 세우게 하고 집합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고 집단협력의 성과를 높인다.

4) 연구의 배경

사회자본연구는 1916년 학교개혁가인 해니팬(Hanifan)에서 시작되었으나 잊혀졌고,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말 저널리스트인 제콧스(Jane Jacobs)와 경제학자인 루리(Glenn Loury)에 의해 재생되고 정교되었다.

1980년대 사회학자인 제임스 콜맨(James Coleman)이 학교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고,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부르디외(Pierre Bourdieu)도 자본개념과 함께 사회자본을 현대적 의미에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사회자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은 1990년대 초 미국의 비교정치학자인 퍼트남(Putnam)의 이탈리아 지방연구에 관한 저술인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성공과 더불어 심화되고 고조되었다. 뒤이어 발표된 미국인이 왜 혼자서 볼링하는가?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인 그의 『혼자서 볼링하기(Bowling Alone)』는 더욱더 그러한 전환점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그 후 개인, 집단, 기업, 사회복지, 지역정부, 국가, 국제경제 발전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회자본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 후반부터 사회자본연구에 관한 책과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자본 연구는 최근의 현상이나 그 연구결과는 폭발적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지방정부와 동네단위의 사



회자본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1) 해니팬(Hanifan), 제콥스(Jane Jacobs), 그리고 루리(Glenn Loury)
(1916~1970년대)

미국의 농촌학교 주교장을 지낸 해니팬(L. J. Hanifan, "The Rural Community Center, "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and Social Science 67, 1916, pp.13-138)은 사회자본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자본을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자신에게만 의지한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무력해진다. .. 만약 그가 그의 이웃과 접촉한다면 이웃이 다른 이웃과 접촉한다면 그 결과 그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것이고, 이는 전체 공동체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잠재력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사회자본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라졌다.

1961년 저널리스트인 제인 제콥스(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New York: Random, 1961)는 『위대한 미국도시의 삶과 죽음』이란 책에서, 현대도시에서 사회자본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도시의 신뢰는 많은 인도 접촉을 통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형성된다. 이는 맥주를 들기 위해 바를 찾는 사람 혹은 식품점주인으로부터 조언을 얻는 사람 혹은 신문매원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 빵집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비교하는 사람 그리고 현관입구의 충충대에 앉아 탄산수를 마시는 두 소년에게 고개를 흔들며 인사하는 사람, 식사 초대 전화를 기다리면 여성을 훑어보는 사람, 어린이에게 조언하는 사람, 약제사에게 1달러는 빌리는 사람, 철물상인으로부터 직업에 대한 소식을 드는 사람, 신생아를 황홀하게 바라보는 사람, 코트가 바래는 방식에 동정하는 사람에서 성장합니다. 이 같은 대부분은 표면상 극히 하찮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총합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그녀는 공동체와 사회자본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을 비난하면서 사회자본이 넘치는 도시를 제시하였다.

1977년 경제학자인 글렌 루리(Glenn Loury)는 사회자본을 인종적 불평등을 분석하는 기초개념으로 적용하였다. 사람들의 삶의 기회는 부모의 사회적 자원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종집단이 지닌 사회자원에 의존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소수민족 출신의 아이들이 상향이동을 위하여 노력할지라도, 사회자본에 있어 이 같은 불

평등이란 장애물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미국사회의 인종불평등 분석에서 사회자본을 중시해야한다는 것이었다.

(2) 제임스 콜맨, 피에르 부르되 : 1980년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되는 자본이 사회생활에서 일종의 힘의 형태이며,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 관계성(connectedness, 사회력)으로 되어 있고, 몇몇 조건에서는 경제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고 지속적인 사회교환에 바탕을 두는 네트워크라고 한다. 부르되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회 네트워크와 사회 관계성이다. 부르되는 사회 네트워크는 구축되어야하고 행위자가 네트워크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본축적의 전략으로 사회자본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투리의 사회자본에 근거한 콜맨은 사회자본을 기능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자본의 두 공통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의 몇몇 양상(네트워크, 관계성, 집단성원, 의무와 기대, 규범과 효율적인 제재... 등)을 지니고, 둘째, 사회자본이 이 구조 안에서 어떤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지역사회이든 국가이든 그러하다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사회자본이 없다면 불가능할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도 상호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혹은 집합행동의 바탕을 이룬다고 본다.

(3) 퍼트남의 사회자본 : 집합행동의 딜레마의 해결책

퍼트남과 그의 동료는 20년 동안 이탈리아의 상이한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사회 프로그램을 다루었는가를 연구하였다. 이탈리아의 20개 지방정부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동일한 제도를 지닌 지방정부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눈에 띄일 정도로 상이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그 원인을 사회자본에서 접근하였다. 이들은 남부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는 20년 동안 진보하였으나, 북부와는 달리 남부는 거의 진보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바로 집합 행동(협력모델)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남부와 북부가 상이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퍼트남,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서울: 박영사, 2000))로 보면 다음과 같다.



	북부 이탈리아 지방정부	남부 이탈리아 지방정부
수단	호혜성의 규범, 시민참여의 네트워크, 상호부조 모임, 협동조합, 노동조합, 축구클럽, 문인동우회, 합창단 수평적인 시민적 유대, 신뢰와 준법 참가, 통합, 연대	수직적인 사회정치 참여, 상호의심과 부패, 시민적 조직 참여의 부진, 비도덕적 가족주의, 비효과적인 지방정부, 규제, 수동적 시민성....
성과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제도적 성과 /시민의 생동성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제도적 성과 시민의 무력감과 소외 불신....

퍼트남은 이탈리아 남부 지방정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을 건설해야하고 이는 사회경제문화발전의 열쇠라고 결론짓고 있다. 시민참여와 사회적 관계성(즉 사회자본)이 더 좋은 학교, 더 안전한 거리, 더 빠른 경제성장, 더 효율적인 지방정부,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는 생활을 결과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사회자본을 우리 사회가 공급 혹은 축적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참여, 건강한 지방정부와 시민공동체, 상호주의와 협동모델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사회제도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Putnam, Bowling Alone(New York: Simon, 2000).

3. 사회자본과 갈등관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협력은 상호주의 혹은 상호이익에 근거한다고 위에서 지적하였다. 먼저 이익(interests)의 타입과 범위에 근거하여 집합행동의 딜레마인 사회갈등 관리에로의 접근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이익의 타입과 범위

이익(interests)은 이익의 타입과 이익의 범위에서 볼 수 있다. 이익의 타입은 이익이 자신만을 고려하는 가 혹은 타인을 고려하는가에 따라 양분될 수 있다. 이기적 이익과 이타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익의 범위는 포함된 사람의 수이다.

이익의 타입이 만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혈연, 지연, 학연, 친구와 같은 다른 집단에 한정된 것이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이익의 타입	
이익의 영역		이타적	이기적
	전체	정부(국가, 공동체)①	시장②
	소수	가족/친족③	이익집단④

이익의 영역과 이익의 타입을 (1),(2), (3), (4)로 나누어 각각 검토할 수 있다.

- ① 정부(국가, 혹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사태에 따라 전체로 볼 수 있는)의 영역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집행해야하고 그 목표와 결과는 전체 최소한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보기를 들면 법과 질서는 모두 전체를 위해 평등하게 실행되어야만 한다.
- ② 시장영역이다. 시장에서는 행위자는 이익을 추구하나. 이익의 영역은 전체이다. 시장에서 이익추구는 정당화될 수 있으나, 만인을 시장접근에 평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말하자면 공정한 경쟁에 근거한 만인에 개방적인 시장이어야만 한다.
- ③ 사적영역인 가족과 친족이다. (3)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가족 혹은 친구, 친족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규범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 혹은 친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도 한다는 점에도 보면 이타적이다.
- ④ 사적영역인 이익(지역사회들)집단이다. (4)에서는 우리는 일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이기적이고 소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집단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보다는 이 집단성원들 사이에서만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이익집단의 지도자들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이익의 관점에서 본 “교환의 논리(logic of exchange)”이다. 따라서 가족/친족 혹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장악한다면 그 정부정책과 관행이 전체를 위할 수도 없고 이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을 것 같다. 시장도 그러할 수 있을 것 같다.



2) 사회자본의 타입과 분류

사회자본의 타입은 다양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일반적 분류에 속하는 수평적 사회자본과 수직적 사회자본이 있을 수 있다.

(1) 수평적 사회자본: 결합형 사회자본과 접합형 사회자본

수평적 사회자본(horizontal social capital)은 공동체의 권력구조 안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측면적 결속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동체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공동체에서 공동 방법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면대면 상호작용과 신뢰의 형성을 통하여 결국 공동체감정과 공동목적을 위한 협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 결합형 사회자본 (bonding social capital)

결합형 사회자본은 개인들 혹은 집단들 사이의 수평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된 유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같은 개인들과 집단들은 공동의 유사한 인구적 특성을 지닌다. 지연, 혈연, 학연 등을 그 보기로 들 수 있다. 결합형 사회자본은 상당히 배타적이다. 공유된 정체성을 지닌 관계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뜻하기 한다. 결합형 사회자본에서 회원에 동의하는 이유는 다른 회원(참여자)이 자신과 비슷하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밀접하고 배타적이고 높은 경계를 지니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특수적 사회자본과 비슷한 자본이다. 결합형 사회자본을 형성한 집단은 그 성원(회원)을 자신처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성원이 아닌 사람이 개입한 활동은 주저하거나 피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따라서 결합형 사회자본은 광범위한 공동체수준의 협동과 신뢰의 혜택을 낳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풀의 기능은 그 결사 성원들 사이에서만 강하게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조직의 개인들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 접합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접합형 사회자본은 결사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공동의 사회정체성에 근거한 분화 원칙, 유사한 사회출신과 지위가 네트워크 참여자격을 얻는 데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참여자들은 보통 비교적 넓은 범주의 배경을 지닌다.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대략적 이유는 집합 행동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 사회자본과 유사하다. 시민생활의 대부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합창단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조기 축구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 같은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상호성에 근거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접합형 사회자본은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바람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합형 사회자본을 형성한 집단 (bonded group) 밖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이한 권력, 배경, 지위를 지닌 사람들을 포함할지라도 계서적 관계성은 낮고 동질적 집단을 구성하게 한다.

결합형 사회자본을 통해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접합형 사회자본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이고 개방적인 경계를 지닌다. 보기를 들면 합창 혹은 스포츠 활동과 같은 레저활동이 될 수 있고, 결국 소규모 노동 팀의 일부로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공적 사적 부문에서 대기업의 일부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연상시킬 수 도 있다. 접합형 사회자본은 시민의 상호결합 혹은 시민의 자치 국내정치참여, 자발적 결사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다. 결합형 사회자본과 접합형 사회자본: 차이와 의의

결합형 사회자본과 접합형 사회자본의 차이와 의의는 아래와 같다(Putnam, 2000, pp. 22-23).

“결합형 사회자본은 특수한 호혜성을 뒷받침하고 유대를 동원하는 데 유익하다. 보기를 들면 인종적 엔클레이브(enclave, 소수의 이문화 집단거주지)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는 불행한 공동체성원들에게 중대한 사회심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고 한편으로 지역 기업가를 위한 개시 금융, 시장, 믿을 수 있는 노동력을 마련한다. 결합형 사회자본과는 달리 접합형 네트워크는 외부 자산으로 연결 그리고 정보 확산에 훨씬 더 유익하다. 경제사회학자인 그래노베퍼(Mark Granovett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구직할 때 혹은 정치적 동맹자를 찾을 때, 나의 서클에서 다른 서클로 이동한 멀리 떨어진 아는 사람(知人)에게 나를 연결시켜주는 ‘약한’ 유대가 실제로는 나를 친척과 친밀한 친구에게 연결시켜주는 ‘강한’ 유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접합형 사회자본은 더 넓은 정체성과 호혜성을 낳을 수 있는 반면, 결합형 사회자본은 우리



의 협소한 자아(narrower selves)를 지지한다.”“결합형 사회자본은 일종의 사회학적인 초강력 풀의 성질을 지니나, 접합형 사회자본은 일종의 사회학적인 윤희유(WD-40)의 성질을 지닌다. 결합형 사회자본은 강력한 내집단 충성심을 만들어냄으로써 강력한 외집단 적대감도 창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사회자본과 접합형 사회자본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다.

(2) 수직적 사회자본(아래는 John S. and James L.Knight Foundation에 크게 의존하였음)

수직적 사회자본은 공동체(지역사회, 국가, (지방)정부, 기업) 지도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을 시민과 연결해주는 결속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법률과 정책 혁신으로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수직적 사회자본은 지역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주민과의 대화, 이메일, 우편 ... 등으로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정책결정자와 지역의 지도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주민의 능력은 사회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동체 생활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이다. 주민이 공동체를 위한 의제와 문제를 지도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지역문제해결의 열쇠이다.

수직적 사회자본 형성에서 공동체 성원의 필요와 관심을 알고 존경받는 비공적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이는 공동체성원에게 리더쉽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따라서 공동체 기반의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신뢰를 촉진하고 그들 시민을 대신하여 선거관리에 개입하고 다른 정책결정자들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겠다. 물론 공동체의 기업, 현장노동자, .. 등과 같은 공동체조직과 공동체지도자들을 연결하는 결속도 수직적 사회자본이다. 수직적 관계에서 사회신뢰와 협동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도 하나, 지역공동체 주민이 지역지도자에게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2.1%가 사회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사회자본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부산일보 2005년 11월 12일).

3) 사회자본과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 사회자본과 사회결속(group cohesion)

일부는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갈등은 ‘무리가 없고 당연한 현상’이다. 갈등론자에 따르면 갈등이 사회관계에 내재한다고 한다(conflict as built into social relations).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견해이다. 갈등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사회에 유익하다는 의미이다. 갈등론자와는 달리 기능주의자는 갈등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다. 갈등이 아니라 합의(consensus)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협력을 성취하기 위해 사회는 갈등이 아니라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상호의존적 사회체계에서 일방이 타방과 협동하기보다는 갈등을 일으킨다면, 사회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생존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기능주의자는 갈등을 정상적인 상호작용(normal interaction)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기능주의자는 사회의 부분이 사회의 안정 혹은 생존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주요한 요소로 질서, 합의 조화를 강조한다. Talcott Parsons(1951); 한편으로 갈등주의자는 사회발전과 변동을 대립적 세력 사이의 갈등의 결과로 본다. 그 주요 요소로 무질서와 갈등 그리고 갈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연대성과 유대감은 질서와 합의의 조화로 볼 수 있으나(E. Durkheim, 1947)), 집단성원 사이의 적대적 감정과 대립으로 위협받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연대성과 유대를 설립 혹은 재설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Lewis Coser, 1956).) 갈등론자이든 기능론자이든 관계없이 갈등이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여튼 관리를 통하여 갈등을 사회발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하여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도 있다.

갈등의 원인은 대체로 개인적 갈등, 본질적 갈등, 절차적 갈등 그리고 경쟁과 갈등으로 구분된다. 사적인 갈등을 제외하고, 본질적 갈등이란 사적인 적대감에서가 아니라 집단 목표와 집단계획을 둘러싼 의견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절차적 갈등이란 전략과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일어날 수 있고, 경쟁은 다른 집단 성원을 좌절시켜야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상황이며, 협동은 집단의 다른 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그 집단 성원의 성공을 이



를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상황이다(보기를 들면 단체퀴즈쇼).

공동체의 많은 상황에서 경쟁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본가치는 경쟁, 협력, 그리고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결과를 최대화하려는 경향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 모두 우리사회가 인정하는 가치이다. 사회적 갈등은 집단성원들 사이에 요소들 - 자원, 집단목적에 대한 기여, 그리고 명예와 비난 - 을 분배해야만 할 때 일어나기도 한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이 우리 공동체를 상호 협력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집단 결속(group cohesion)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협력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그 집단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치는 힘의 장(field of forces)을 결속으로 정의할 수 있다(Festinger). 결속은 라틴어의 cohaesus에서 비롯되었고 그 의미는 “함께 결합하다(sticking together)”이었다. 결속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집단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에 우호적인 개념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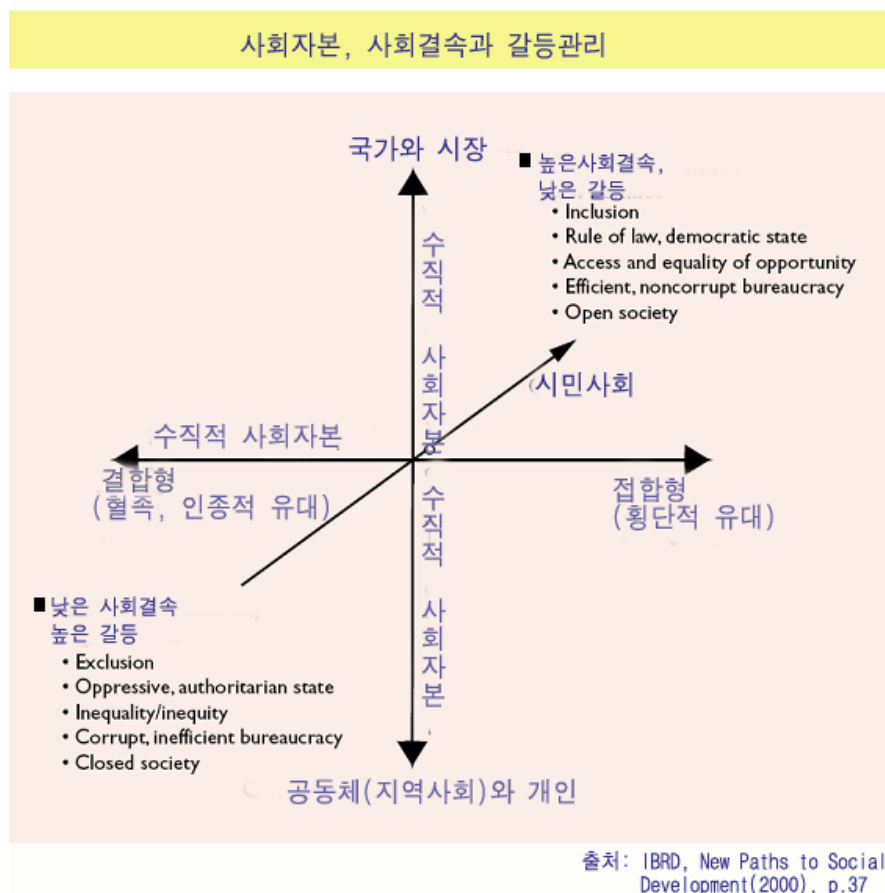
결속은 결속력, 집단소속감, 집단통일, 집단에 대한 매력, 사회적 매력, 대인 매력, 팀워크로서 이해될 수 있으나, 다차원적 구성 - 수직적 결속과 수평적 결속 - 에서 접근할 수 있다. 결속집단은 비결속 집단보다는 그 성과가 클 수 있다. 결속의 혜택이 집단과 개인 양자에게 주어진다면 개인은 집단에 머물 것이고 결속 집단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다.

(2) 사회자본, 사회 결속과 갈등관리

발전을 위해 협동하고 기회, 위험, 자원을 함께 나누고 협동 행동을 가능하게 함은 사회관계와 네트워크에 있다. 수직적 사회자본(국가 정부가 시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할수록)과 수평적 사회자본이 강화되고 교차하면 할수록 사회는 결속되고 따라서 갈등이 폭력화되거나 악화되기 전에 중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포괄적 메커니즘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사회로의 침투는 상이한 집

단들을 접합하는 사회자본을 육성할 수 있다. 사회 결속이 약해지면 사회통제와 동의와 합의 메커니즘의 채널은 약화되고 이어서 사회분열, 혼란, 배타성 등과 함께 갈등관리와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진다.

반대로 불평등 그리고 권력과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고통 받는 수직적 관계를 지닌 사회에서는, 갈등관리가 아니라 갈등상승을 유발하기 쉽다. 수평적 관계에서 상이한 집단들 사이에 유대가 결여되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하여 자원과 권력을 독점한다면, 그리고 이 집단 안에서 높은 수준의 결합형 사회자본으로 유사한 집단성원들만을 결속하게 하고, 다른 집단이 권력과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면, 즉 강력한 결합형 사회자본과 약한 수직적 사회자본이 형성된다면, 갈등관리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사회자본, 사회결속과 갈등관리에서처럼 낮은 사회결속/높은 갈등을 지닌 사회의 특징은 배타성,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국가, 불평등과 불공평,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 폐쇄사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강력한 결합형



사회자본의 득세, 공정한 시장기능의 결여, 국가의 시민요구에 대한 무관심 등에서 결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높은 사회결속/낮은 갈등을 지닌 사회의 특징은, 포괄성, 법의 지배, 민주적 정부, 기회의 접근과 평등, 효율적이고 깨끗한 관료, 개방사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이한 집단들 사이의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접합형 사회자본의 강화, 공정한 시장기능, 공정하고 민주적인 갈등해결절차, 국가의 시민요구에 대한 민감성 등에서 결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높은 사회결속이 없다면, 갈등을 관리하거나 완화하는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어렵고 작동하더라도 큰 비용과 시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등관리의 전략적 방안 가운데 그 바탕은 사회자본과 연계되어 한다.

4. 마무리

사회자본은 사회 상호작용에서 협력의 질과 양을 형성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은 우리에게 다양한 범주의 경제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범위는 확산적이다. 보기를 들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높은 학업성취도, 낮은 범죄율, 더 나은 건강, 갈등의 순기능적 관리, 상생협력의 촉진, 효율적인 정부, 기업생산성의 향상 (노동자와 고용주사이의 신뢰 관계) 등이다. 발전의 바탕을 이룬다.

사회자본은 결합형 사회자본과 접합형 사회자본 그리고 수직적 사회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각은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결합형 사회자본은 유년기와 노년기의 건강(청소년 범죄예방, 학생의 학업성적의 개선, 중고등학교생의 퇴학을 저하)에 아주 중요하며, 접합형 사회자본은 성년기의 사회활동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카르텔과 같은 협동적 행동은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 포용성과 집단동원에 장애물(지연, 혈연, 학연에 근거한 결합형사회 집단) 역할을 할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고(종교에 근거한 네트워크), 범죄율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증가(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 성원의 연대와

유대)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부정적 결과는 대체로 지연, 혈연, 학연에 근거한 이타적 이익과 집단 이익추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과 갈등관리의 바탕을 제공하는 본래의 사회자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서적인 사회 상호작용에서 수직적 사회자본도 사회경제발전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사회자본이 협력과 갈등관리에서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익한 사회자본을 축적함에 있어,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자본의 측정문제(Knack & Keefer(1977,'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 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2, no.4 p.1256)은 시민협력(상생협력)이란 규범의 강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정당화될 수 있다. 그저 그렇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에서 측정될 수 있다고 한다. 질문은 1) 당신이 자격이 없는 혜택을 정부에 요구하기 2)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표를 조사하지 않으면 요금 안내기 3)기회가 있다면 세금신고 속이기(세금회피) 4) 우연히 주운 돈을 돌려주지 않기 5)주차장에서 뜻하지 않게 입힌 손해를 신고하지 않기이다;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의 측정기준을 퍼트남(2000)은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개인의 비율과 대부분의 사람이 정직하다고 답한 개인의 비율로 정하고 있다), 사회자본을 추진하는 데 거의 변형할 수 없는 정치문화, 사회자본의 남용가능성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사회자본이 필시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란 가정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사회 안에서의 결합형 사회자본의 육성은 결국 다른 지역사회와의 협동을 어렵게 하거나 지역사회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합형 사회자본과 접합형 사회자본이 균형을 이루면서 높은 사회결속과 낮은 갈등을 지닌 시민사회를 형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란 의문에 대한 해답이다. 이 같은 해답의 추구는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개인수준, 지역사회수준, 국가 수준의 사회 협력과 갈등관리에 새로운 통찰력을 부여할 수 있다(Performance & Innovation Unit, Social Capital, A Discussion Paper, April 2002, p.59-74참고; Lang & Hornborg, What Is Social Capital and Why Is It Important to Public Policy? Housing Policy Debate, vol.9, No.1, pp.1-16). 사회자본은 제도, 개인, 집단, 기업, 지역사회, 국가가 아니라 이 같은 단위들을 연결



하는 접착제이며, 이 같은 단위들 사이에서 우리가 유익한 유형의 사회자본(lubricant)을 어떻게 육성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은 보이지 않는 자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엄청난 자원, 실물 자본, 인적자본을 육성하고 투자하였음에도 그 성과가 낮은 것은 사회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기초는 사회자본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초가 약하다면 그 위에 세운 건물 - 인적 자본, 실물자본, 자원, 금융자본의 육성과 투자결과 - 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사회자본의 충실화는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Putnam 지음,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서울: 박영사, 2000)
- Putnam, Bowling Alone(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New York: Basic Books, 1984)
- Ellickson, Order Without Law: How Neighbours Settle Disputes, (Harvard: Harvard, 1991)
- Brewer, 'Building Social Capital: Civic Attitudes and Behaviour of Public Servant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03, vol. 13, no. 1, pp. 5-26.
- Sanginga 외, The Dynamics of Social Capital and Conflict Management In Multiple Resource Regime, Ecology and Society 12(1):6(2007)
www.ecologyandsociety.org/vol12/iss1/art6

* 이 글은 세미나발표논문 초안으로 온전한 형태가 아니며, 세미나 발표이후 수정하여 완성할 예정으로 무단 인용을 금합니다. ©2007 이병희